

17세기 여자 출토 장의의 구성법에 관한 연구

-영암출토 경주 이씨(? ~ 1684) 장의를 중심으로-

안 명 숙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Women's Excavated Jangui in 17th Centuries

-Mainly on the Jangui from KyungJu Lee's Tomb in Young-am-

Myung-Sook A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2007. 5. 31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observation of women's Jangui in 17th centuries. As we observed, Jangui in seventeenth century was shown the same style.

They were not headdress but coat. The characteristics of shape are Mokpankit, double-seop, straight sleeve, triangle moo, sam-su(which is attached to the end of sleeves) and a little coat string etc.

There is no specific mode difference with the change of times. However, the straight sleeve is shown straight line in the early Chosun dynasty.

Jangui in seventeen century are all oblique line sleeve except Jangui of Jin-ju Ha's family.

Jangui put on coat do not seem clear-cut difference with the change of times.

From Jangui of Yang-chun Hu's family in 14th centuries till An-dong Kim's family, the special features of Jangui are the same style. In addition, The double-seop in 17th centuries was not completely symmetry. However, after 19th centuries, Jangui for headdress was shown perfectly symmetry.

Key words: Jangui(장의), double-seop(이중섶), straight sleeve(통수), triangle gusset(삼각무), Mokpankit(목판깃)

I. 서론

17세기 여자 분묘에서 출토된 여자 복식은 저고리, 치마 외에 속바지류가 많으며 그 외 겉옷으로 장의, 당의, 원삼 등이 출토되었으며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은 장의이다. 장의는 시기별로도 조선 전(全) 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지역별로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 지역에 걸쳐 출토되고 있다.

출토된 장의의 수량이 17세기에 가장 많아 이 시기 장의의 유형적 특징 및 구성법 등을 알아보는 것은 장의의 유형과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복식사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 여자의 포제는 남자의 포제에 비해 출토된 종류와 수량도 적다. 그러나 장의가 가장 많아 겉옷으로서 장의의 구조 및 구성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처럼 장의가 여러 묘에서 여러 점 출토되어 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여자복식을 좀 더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영암 출토 경주이씨 출토복식에 대한 배경과 전반적인 출토 복식 품목 등은 이미 선행 논문¹⁾에서 연구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출토된 여성 장의의 형태적 특징과 출토 장의의 구성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주 이씨와 동시대 장의의 출토 현황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전체 유물을 모두 보지 못하고 몇 건은 출토보고서를 통해 유물을 살펴보아 자세한 부위의 특징 및 정확한 치수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출토 장의의 이론적 배경

장의는 출토복식 가운데 옷깃의 형태가 직령이기 때문에 직령으로 표기되기도 하였고, 남자의 것은 직령으로, 여자의 것은 장의로 보는 학자도 있다. 세조 2년 기록에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장의를 衣裳 사이에 입어 3층을 이루게 하고...”라고 하였고²⁾,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장의 정씨 출토

복식 중 장의 위에 장저고리를 착용한 독특한 착장법이 보이기도 한다³⁾.

남자도 장의를 입었으므로 보통 출토 분묘에서 장의와 직령을 구분하지 않고 남자의 분묘에서 출토되면 직령이라 하고, 형태가 비슷함에도 여자의 분묘에서 출토되면 장의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 포제인 장의만을 다룬다.

박성실⁴⁾은 장옷은 조선시대 초, 중기에 남녀 모두 입었던 포의 일종이고, 장옷의 특징은 좌우대칭형으로 목판깃이 이중썩과 나란히 달리고 겨드랑이 아래에 소형 삼각무가 있으며 태수(苔袖, 끝동)가 달린 직령 교입형이라고 하였다.

박필순·박윤미·정복남⁵⁾은 장의는 조선조 전반에 걸쳐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었던 포제로 깃모양이 목판깃이고 옷깃과 옷고름, 겨드랑이에 정사각형 무가 異色으로 되어 있으며, 소매 끝에 거들지가 있는 포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안명숙⁶⁾은 장의의 형태는 두루마기와 거의 같으나 다른 점은 소매 끝에 흰색 또는 다른 색 형짚을 넓게 댄 것과 옷깃과 옷고름, 겨드랑이의 삼각무를 다른 색으로 댄 점 등이라고 하였다.

포제와 쓰개의 차이를 나누는 중요한 점은 입을 때 좌우대칭형이라도 머리 부분에서 앞중심이 맞닿으면 쓰개이고, 포제용 장의 중 좌우대칭이라도 앞중심에서 여미어 지지 않고 우임으로 여미어 지면 포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17세기에 출토된 장의는 쓰개이기보다는 포제였다고 보이며, 그 형태적 특징은 목판깃에 이중썩, 소형 삼각무, 태수 등에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보인다.

III. 장의의 출토현황

고부자·박승원⁷⁾은 여성 묘에서 장의가 출토된 것은 10건이라고 하였고, 박진영⁸⁾에 의하면 17세기 출토 장의로는 7건이 있고, 전 시기에 걸쳐 장의가 출토된 것도 10건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세기만 12건이고 16세기, 18~20세기에 해당하는 출토 장의와 남자 묘에서 출토된 여자 장의도 있어 그 수량은 더 추가된다고 보인다.



-문단겹장의-



-명주솜장의-



-무명솜장의-

〈그림 1〉 경주이씨 출토 장의

본 연구에서는 17세기에 출토된 장의 12건, 총 49점에 대해 특징을 살펴보고, 경주 이씨 장의에 대해 구체적인 구성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출토 장의는 총 49점 중 홑장의가 2점, 겹장의가 6점인 것을 제외하고는 40점은 솜을 두어 만든 방한용임을

알 수 있다(양천 허씨의 장의 1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음). 즉 솜을 두거나 누빈 장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외출시 방한용으로 많이 착용하였던 것 같다.

남양 홍씨⁹⁾의 유물은 연구에 의하면 포가 7점이 라 되어 있으나 장의는 4점으로 보이며, 누비 장의

〈표 1〉 17세기 장의의 출토현황

	묘주명	시기	수량	구성	치수(cm)	소재
1	구례 손씨	1576~1626	1	솜(1)	옷길이 : 125, 화장 : 89 길너비 : ?	무명
2	경주 이씨	? ~ 1684	3	겹(1), 솜(2)	화장 : 69~78, 옷길이 : 114~129 길너비 : 15.5~25.5	문단, 명주, 무명
3	김덕원공 부인	1634~1704	8	솜(4), 솜누비(4)	옷길이 : 111~122, 화장 : 72.5~88 길너비 : 16~24	문단, 명주
4	남양 홍씨	1584~1654	4	솜(2), 솜누비(2)	옷길이 : 112~130, 화장 : 70~94.5 길너비 : 22~23.5	문단, 명주
5	문영 부인	1637~1658	1	솜(1)	옷길이 : 122.5, 화장 : 90 길너비 : 24.5	무명
6	문화 유씨	1617~1685	2	솜누비(2)	옷길이 : 120~128, 화장 : 70~92 길너비 : 16~18	명주, 문단
7	양천 허씨 (고령)	1566~1626	5	겹(2), 솜누비(2), ?	옷길이 : 120~128, 화장 : 76.5~97.5 길너비 : 31.5	명주, 단
8	여흥 민씨	1586~1656	11	솜(7), 솜누비(4)	옷길이 : 124~130, 화장 : 74.5~85.5 길너비 : 19.5~24.5	문단, 명주
9	여흥 박씨	1605~1672	1	겹(1)	옷길이 : 120, 화장 : 제측불가 길너비 : 19.5	문단
10	장기 정씨	1565~1614	6	겹(1), 솜(4),솜누비(1))	옷길이 : 119~125, 화장 : 85~102.5 길너비 : 25~29	문단, 능, 명주
11	전의(全義) 이씨	1570~1647	3	솜누비(3)	옷길이 : 118~128, 화장 : 68~84 길너비 : 21.5~25	명주
12	진주 하씨	1580~1684	4	홑(2), 겹(1), 솜(1)	옷길이 : 102~123, 화장 : 82~94.5 길너비 : 26~27	모시, 무명, 삼베

한 점은 양 소매가 없으나 나머지 3점은 완전한 형태를 하고 있다. 정확한 도식화 등이 없어 세부적으로 알 수 없었으나 전체적인 장의의 특징은 다른 것과 차이가 없었다.

양천 허씨¹⁰⁾의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명주숨누비장의 한 점만이 그나마 잘 알 수 있다. 거의 형태는 다른 것들과 같으나, 전체적인 치수가 상당히 크다. 길의 너비도 31.5cm로 이 시기의 다른 장의들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장의에 사용된 소재는 대부분 문단과 명주가 많았으며, 솜옷에 무명이 사용되기도 했다. 홑옷은 여름용 소재인 모시와 삼베로 만들어졌다.

IV. 17세기 장의의 형태적 특징

1. 길

이 시기 장의의 옷길이는 가장 짧은 것은 진주 하씨 장의로 102cm 이고, 가장 긴 옷길이는 남양 홍씨와 여흥 민씨의 장의로 130cm 정도이다. 화장은 가장 짧은 길이는 68cm, 가장 긴 화장은 102.5cm로 옷길이의 차이보다 더 컸다. 길의 너비는 별로 넓지 않았고, 가장 넓은 길의 너비는 양천 허씨의 31.5cm 이고, 가장 좁은 길의 너비는 경주이씨 명주숨장 의의 15.5cm 이다. 시대적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으며, 폭을 넓게 하기 위해 쇠를 두 장씩 대어 겹침이 많게 하였으나 길의 너비는 그에 비해 넓지 않았다.

2. 소매

직선 소매는 겨드랑이 부분에 삼각형무를 대어 겨드랑이의 곡선화를 도와 편안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무를 단다. 따라서 소매 모양의 변화는 무(襠)의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 겨드랑이 아래의 무는 소매가 착수형(□□)과 몽각지형(□□)의 소매인 경우 사용되었으나 광수형(□)인 경우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용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즉 착수형과 몽각지형의 소매는 옆선과 소매 배래 사이의 각도가 직각에 가

까워 활동시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무를 달면 옆선과 소매 배래 사이의 각도로 완만해져 찢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¹¹⁾.

장의의 소매 배래는 통수이다. 통수에는 직선형 통수와 사선형 통수가 있어, 직선형 통수는 진동부위와 수구 부분의 치수가 동일하여 직선으로 된 소매로 진주 하씨 장의만 이에 해당되며, 사선형 통수는 진동보다 수구 쪽이 좁아 사선으로 된 소매 형태로 대부분의 다른 출토 장의가 이에 해당된다. 구례 손씨 소매는 파손이 심해 처음에는 형태를 알기 어려웠으나 보존을 통해 추후에 형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김덕원공 부인의 장의¹²⁾는 사선형 통수 중 진동과 소매 부리(수구)의 치수 차이가 다른 출토 장의들의 치수에 비해 10cm 정도로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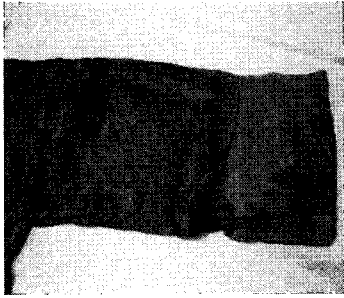
삼수(襟袖)는 태수(苔袖)라고도 하며 다른 천을 대어 만든 넓은 소매부리이다. 장의의 소매 끝은 다른 천을 댄 거들지형과 제천을 연결한 끝동형 두 가지가 있다.

경주이씨 장의의 소매는 3점 모두 사선형 통수로 수구가 진동보다 8cm 정도 짧으며, 거들지를 10, 12, 15cm씩 댄 천으로 댄 삼수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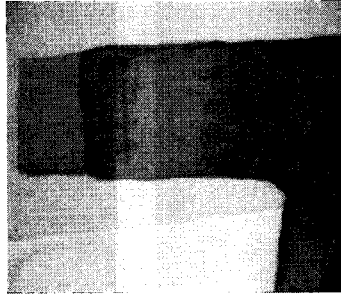
3. 쇠의 구조

장의의 쇠는 크기가 커서 겨드랑이 끝까지 겹쳐지도록 구성되었다. 겹쇠는 모두 이중쇠이고, 안쇠는 이중쇠와 단일쇠 두 가지로 나타난다. 겹쇠와 안쇠 모두 이중쇠일 경우도 구조와 치수 모두에 있어 좌우가 같은 대칭 형태도 있으나, 구조는 같으나 좌우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기 정씨의 경우 6점 중 2개는 좌우 치수도 거의 동일한 좌우 대칭 형태이나 4점의 장의는 안쇠 쪽이 약간 작은 치수로 대칭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포로 입을 때 겹침분을 많게 할 때 포폭(布幅)의 치수로 인해 쇠를 2개씩 넣는 양식을 만들어 사용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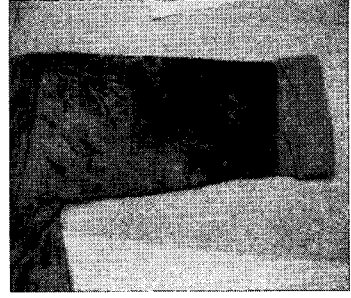
장기 정씨¹³⁾의 6개의 장의 모두 이중쇠이나 겹쇠와 안쇠의 차이가 최대 10cm 정도까지도 있다. 진주 하씨 장의의 이중쇠는 7.5cm 차이이며, 양천 허씨 장의 한점도 겹쇠와 안쇠의 이중쇠 치수가 거의 같



-문단겹장의-



-명주솜장의-



-무명솜장의-

〈그림 2〉 소매배래와 태수부분

으며, 남양 홍씨 의 섶은 계측불가하며, 여흥 민씨¹⁴⁾ 장의 11점 중 겹섶과 안섶의 이중섶 너비는 6점은 거의 똑같으며, 4점은 근소한 차이이며, 한 점은 약 7cm정도 차이이다. 문영 부인 장의는 가장 치수 차이가 많은 것으로 20cm정도이다. 문화 유씨 장의 2점은 거의 똑같으며, 경주 이씨 장의 2점은 2cm와 8cm 정도 차이이다. 문영 부인 장의가 가장 큰 치수 차이를 보였다. 포제로서의 장의는 좌우 길, 안섶이 이중섶인 지 단일섶인 지의 양식 차이는 있으나, 좌우의 치수가 똑같은 지에는 중요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쓰개로서의 장의는 대칭과 대금적 형태가 중요한 형태적 특징이었다.

4. 깃

출토된 장의의 깃은 49점 모두 목판깃이고, 겹, 안깃 모두 안으로 들어가 달린 목판깃의 형태를 한다. 깃의 너비는 10cm 내외이다.

5. 겨드랑이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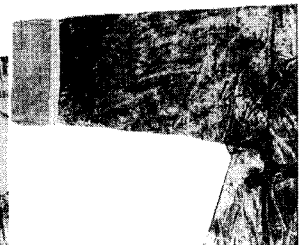
장의는 폭을 넓히기 위해 커다란 사다리꼴무가 사용되었으며, 上衣에 사용된 무관 양쪽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댄 단 폭¹⁵⁾이다. 장의는 특성상 큰 무와 함께 겨드랑이 부분에 작은 무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襠)는 겨드랑이 부위에 여유를 주어 평면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작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실용성으로 인해

조선시대 복식에 폭넓게 사용되었다¹⁶⁾.

겨드랑이 부분에 있는 무에 대한 명칭도 통일될 필요가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장의의 겨드랑이 무를 가지고 사각형무¹⁷⁾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삼각형무¹⁸⁾¹⁹⁾로 언급한다. 또 사각접음무²⁰⁾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²¹⁾에서 무의 명칭은 재단된 모양이 어떤 형태나 보다는 보이는 형태에 의해 명칭이 붙여졌다고 보인다. 형태란 모양으로, 겹으로 본 생김새나 형상을 말한다²²⁾. 즉 옷을 펼쳐 놓았을 때 삼각형으로 보이면 삼각무, 사각형으로 보이면 사각무, 사다리꼴로 보이면 사다리꼴무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보이는 장의의 무는 마름질된 천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지만 보이는 형태가 삼각형이므로 삼각무로 봄이 옳다.



〈그림 3〉 깃과 동정(무명솜장의)



〈그림 4〉 무와 겨드랑이 무(무명솜장의)

권영숙²³⁾은 장의의 겨드랑이 무에 대해서 정사각형으로 재단된 천을 준비하여 대각선으로 자른 다음 다시 잘라진 2개를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연결

<표 2> 17세기 장의의 형태적 특징

묘주(장의수량)	부위		소매		깃	겨드랑이 무(치수) (cm)
	겉섶	안섶	소매형태	삼수		
구례 손씨(1)	이중섶	이중섶	사선형 통수	?	목판깃	삼각무(4)
경주 이씨(3)	이중섶	이중섶(2) 단일섶(1)	"	거들지형	목판깃	삼각무(3.5, 3.5, 3)
김덕원공 부인(8)	이중섶	이중섶	"	끝동형(7) / 제천연결 거들지형(1)	목판깃	삼각무
남양 홍씨(4)	이중섶	이중섶	"	끝동형(?)	목판깃	삼각무(3, 4.5)
문영 부인(1)	이중섶	이중섶	"	끝동형	목판깃	
문화 유씨(2)	이중섶	이중섶	"	끝동형 / ?	목판깃	
양천 허씨(5)	이중섶	이중섶	"	?	목판깃	삼각무
여흥 민씨(11)	이중섶	이중섶	"	거들지형	목판깃	삼각무
여흥 박씨(1)	이중섶	단일섶	"	? / (소매끝부분이 없음)	목판깃	삼각무
장기 정씨(6)	이중섶	이중섶	"	거들지형	목판깃	삼각무(5)
전의 이씨(3)	이중섶	단일섶(2) 계측불가(1)	"	거들지형	목판깃	삼각무(4.5, 4.5, 3.5)
진주 하씨(4)	이중섶	이중섶(1) 단일섶(3)	직선형 통수	색동(1) / 제천연결형(3)	목판깃	삼각무(3, 4, 4, 5)

해 붙였다고 한다. 경주 이씨 장의의 겨드랑이 무(그림 5 참조) 중 2개는 가운데 이음선이 있는 삼각형 모양 2개를 이은 것이고, 하나는 이음선이 없이 통으로 마름질 되었다. 바느질되면서 두 개로 연결된 무의 치수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바느질한 것이 사각형 통으로 마름질 된 무보다 겨드랑미이 튼튼하다.

V. 장의의 바느질법

경주 이씨의 장의는 3점 중 1점은 겹옷, 2점은 솜옷으로 기본적인 구성은 겹옷 바느질이다. 문단겹 장의는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었으나, 2점의 솜장 의는 상태가 양호했다. 명주솜장 의는 솜이 꽤 두꺼웠으나 무명솜장 의는 얇았다. 겹옷과 솜옷이므로 기본적인 구성법은 겹옷 바느질법을 살펴본다. 장의의 바느질이라고 특별한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겹옷 바느질 하는 것과 비슷하다.

1. 길

1) 등솔박기

17세기에 출토된 다른 장의들과 마찬가지로 어깨

솔은 시접없이 앞, 뒤길을 연이어 재단하였다. 등솔은 곱게 흠질하여 입어서 오른쪽으로 시접 처리를 하였다. 대부분의 부위에 사용된 흠질 맘은 보통 0.2cm 정도이다.

2) 섶과 섶 연결하기

겉섶, 안섶 모두 큰섶과 작은섶은 흠질로 연결하며 시접은 큰섶쪽(즉 길쪽)으로 넘겼다.

3) 길과 섶 연결하기

길과 섶을 연결할 때 흠질로 바느질하여 길쪽으로 시접은 넘겼다.

2. 깃 달기

깃의 걸감과 안감을 흠질한다. 박은 후 완성선대로 시접을 꺾는다. 깃 모양을 만든 후 안쪽에서 걸깃을 먼저 달고, 겉쪽으로 돌려 깃머리 부분을 0.1cm 정도의 고운 박음질로 박는다. 걸감의 깃만 달고 안감의 깃은 나중에 걸, 안감 모두 이은 후 마무리할 때 단다.



-문단겹장의-



-명주숨장의-



-무명숨장의-

<그림 5> 무

3. 무 달기와 옆선박기

경주 이씨의 장의 겨드랑이 무 중 삼각형으로 재단된 무 2개는 중심에서 흠질하였고 시접은 뒤쪽으로 보냈다. 이어진 겨드랑이 무는 치수도 조금 달라 바느질 솜씨의 차이로 생각된다. 겨드랑이 무의 사방 시접은 모두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길과 무의 연결은 모두 흠질하였고, 겹장되는 시접 방향이 가름솔이고, 숨장의 2점은 연결 시접이 길쪽으로 되어 있다. 무와 무를 연결하는 옆선은 모두 뒤쪽으로 시접 방향이 되어 있다.

4. 소매 배래박기

무와 겨드랑이 무가 연결된 상태에서 소매 배래를 박으며, 배래 솔기는 뒤쪽으로 꺾었다.

5. 길과 무, 소매 연결하기

길과 무, 소매 연결은 진동점을 잘 맞추어 연결하여 흠질하며 시접은 길쪽으로 꺾었다.

6. 걸, 안감 잇기

걸감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감을 만든 후, 안감을 걸감에 끼워 넣되 걸과 걸을 맞닿도록 끼운 다음, 선단과 밑단을 둘러가며 고운 흠질한다. 시접을 걸감쪽으로 꺾어 다린 후 고대 쪽으로 뒤집어 전체를 잘 다리어 형태를 잡는다.

7. 안, 걸감 고정상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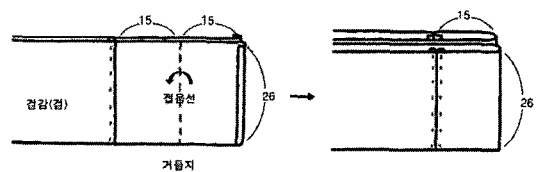
안감과 걸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 상침한다. 1cm 간격으로 0.5cm 땀으로 시침하였다.

8. 깃 마무리

안쪽에서 안깃을 0.2cm 간격을 두고 공그르기 한다. 깃 가장자리는 고정 상침한다.

9. 거들지 달기

3점 장의 모두 소매 부리에 거들지를 달았으며, 거들지를 안감과 연결해 거들지를 반으로 접어 올려 걸감과 고정 시침질 하였다. 문단겹장되는 거들지 색이 걸감과 같은 색이며 거들지 너비는 15cm로 3점의 장의 중 가장 넓었다. 명주숨장되는 거들지는 소색이며 12cm 이고, 무명숨장되는 소색으로 10cm이다.



<그림 6> 거들지 만들기

10. 동정 달기

동정은 2.5cm 간격으로 0.2~0.3cm 정도의 땀으로

깃 위에 시침하였다.

가 있다 하겠다.

11. 고름달기

고름은 2점은 길이가 잘리지 않았고, 한 점은 길이가 잘려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었다. 고름 너비는 모두 2cm 정도였다.

VI. 결론

17세기 경주이씨 장의의 형태나 구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적 특징이나 양식, 구성법이 공통적으로 비슷하다. 17세기 장의는 쓰개이기보다는 포제였다고 보이며, 그 형태적 특징은 목판깃, 이중섄, 통수형 소매 배래, 사다리꼴무와 겨드랑이 삼각무, 거들지형이나 색동형으로 된 삼수형식, 작은 고름 등이다.

경주이씨 장의의 바느질은 기본적인 겹옷 바느질과 같다. 사용된 바느질법은 0.2cm 정도의 홈질이 주로 사용되었고, 깃머리에 박음질과 안깃에 공그르기를 하였고, 그 외 깃, 동정, 걸·안감 고정 등에 장식 상침이 사용되었다.

17세기 장의들은 진주 하씨 장의를 제외하면 모두 사선형 통수였다. 그러나 이전 1400년대의 양천 허씨와 16세기 후반 파평 윤씨 소매의 진동과 수구는 크기가 거의 같은 직선형 통수여서 그 차이를 보인다.

포제로 입혀졌던 장의는 시대적 변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발전해 왔음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4세기 양천 허씨 장의부터 가장 늦은 시기인 안동김씨 장의에 이르기까지 거의 장의의 특징이 같게 나타난다. 그러나 19세기 말경의 쓰개용 장옷과는 차이가 뚜렷했다. 쓰개용 장옷은 포제 장옷에 비해 깃, 동정, 고름이 매우 크고 넓으며 직선형의 도련, 배래 등의 특징이 국말의 두루마기와 비교할 때 쓰개용 장옷임을 확실히 해 준다²⁴⁾. 또한 17세기의 이중섄은 포제이므로 완전한 좌우 대칭을 이루는 대금상태가 아니었으나, 19세기 이후 쓰개용 장옷은 좌우가 대칭형인 대금 상태를 보임도 차이

참고문헌

- 1) 안명숙 (2001). 17세기 여자 출토복식의 일례. 한국복식학회지, 51(4).
- 2) 「세조실록」 권3 세조2년(1456) 3월 28일, 今國中女子喜着長衣若男子然或以長衣着於衣裳之間成爲三層.
- 3)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38.
- 4)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73.
- 5) 박필순, 박윤미, 정복남 (2005). 의령 전의이씨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13(1), 복식문화학회, p. 103.
- 6) 안명숙 (2001). *op. cit.*, p. 7.
- 7) 고부자, 박승원 (2003). 조경묘 출토유물. 역사박물관, pp. 130~134.
- 8) 박진영 (2000). 조선시대 복식 유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0.
- 9) 고부자, 박성실 (1990). 여주출토 동래정씨 출토유물 소고. 석주선기념박물관, p. 74, pp. 112~116.
- 10) 고부자 (1999). 일영 출토 고령 신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7, 석주선기념박물관, p. 86.
5점이 있다고 연구에는 나와 있으나, 연구에서도 자세한 도식화나 유물 사진이 없어 알 수 있는 한 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음
- 11) 이주영, 권영숙 (2004). 직령의 부위별 형태 특성과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4(5), p. 121.
- 12) 권영숙 (2000). 조선 초 중기 여자 장의제도, 전통복식. 한국전통복식연구회, p. 34.
- 13) 이은주 (2003). 장기 정씨(1565~1614) 묘의 출토복식. 한국복식학회지, 53(3).
- 14) 송미경 (2003). 여흥 민씨(1586~1656) 묘 출토복식. 한국복식학회지, 53(4).
- 15) daum 사전, “무”의 국어사전 뜻.(2007. 5. 10 검색)
- 16) 이주영, 권영숙 (2004). *op. cit.*, pp. 121~122.
- 17) 박필순, 박윤미, 정복남 (2005). *op. cit.*, p. 105.
- 18) 장인우 (1995). 조선 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9~103.
- 19)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73.
- 20)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op. cit.*, p. 41.
- 21) 장인우 (1995). *op. cit.*, p. 126.
- 22) daum 사전, “형태”의 국어사전 뜻.(2007. 5. 15 검색)
- 23) 한국전통복식연구회 (2000). 전통복식. 경춘사, p. 142.
- 24)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② 복식, 자수편-. 문화재청, p. 167.